



# “왔구나! 내 새끼야”



## 연어떼처럼, 추억의 둥지찾아 그들이 몰려온다

광주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 공남섭(71·사진앞 오른쪽), 정태연(68)씨 부부가 설 연휴를 맞아 집을 찾은 손자를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다. 그리운 가족을 만나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듯, 지역민 모두가 올 한 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해 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저들이 온다.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회귀하는 거대한 연어 떼처럼 그리움을 애써 짓누르며 온다. 온돌 같은 추억의 둥지를 잊지 못해 자가용으로, 고속버스로, 기차로 비 오기 전날의 일개미 떼처럼 꼬리를 문 채 정(情)의 자식들인 저들이 온다.

몸이야 과학의 신화를 탄생시키고, 정보를 통제하고, 그리하여 근대화와 새로운 문명의 도전에 창조적으로 적응해온 전문가 또는 숙련공이지만, 아직도 동네 골목에선 서툰고 앳된 큰 아이들일 뿐인 저들이 온다.

어느새 한 집단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고, 슈퍼마켓 주인이 되고, 지아비 지어미가 되어도 고향 마을에선 여전히 밭지 않은 개구쟁이이고 말쑥쟁이일 뿐인 저들이 몰려오고 있다.

지금이야 그 사정이 나아졌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교통정체를 잘도 인내하는, 그 누구도 결코 강요하지 않은 모든 귀향은, 그러므로 필시 생명의 근원을 향한 존재론적인 회향이다.

똥임없이 다 큰 연어의 암수컷들처럼 모천으로 회귀하는, 그러나 끝내 완전히 다가서지 못해 또다시 내일을 기약하며 되돌아서야만 하는 그 어떤 거대한 존재론적인 움직임이다.

그토록 갈망하던 진리가 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가슴을 뚫어준 낯선 땅 낯선 하늘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 이미 다 갖춰져 있었다는 뉘트는 자각과 무관하지 않다. 저들이 세상을 읽고 보게 했던 모든 말들, 그러나 특별히 어머니의 말인 방언 혹은 사투

리를 주변을 의식함이 없이 맘껏 재잘거릴 수 있는 모성적 대지로의 귀(歸依)를 뜻한다. 역대 권력자들이 설을 없애려 했던 모든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고향마을에선  
여전히 밭지 않은  
개구쟁이이고  
말쑥쟁이일 뿐”

설은 한 민족과 집단의 의례적인 명절 중의 하나가 아니라, 그 시원부터 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했던 원형질, 제 마음의 근원 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 어떤 것을 확인하는 경건과 감사의 축제일이다.

또한 그것은 도저히 거부하거나 거부할 수 없

는 엄숙하고 거룩한 명령의 수령. 그러나 한 마디의 불평불만이나 반항 없이 자발적인 복종과 아름다운 헌신을 부르는 특별한 하루이다.

제 안에 있는 이상향을 새삼 확인하는 한 종족의 시간이며, 그리하여 또 다시 진정한 자기를 찾아 연어의 처어들처럼 더 넓은 강으로, 바다로 나아가는 결단의 순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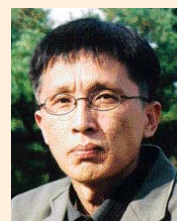
아마도 그러리라. 농경시대가 몰락해 가면서 등장한 태양력의 족속들의 지배가 당연시되면서 점차 그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지만, 설은 한 민족에게 ‘나는 누구인가’가 묻는 한 해의 첫날이다.

한 문명의 월경이 끝나가면서 돌아갈 곳 없음으로 사나워지고, 더 이상 몰려설 곳 없음으로 잔인해진 신종족들이 마치 처음인 듯 진정한 자기와 마주서는 거룩한 시작의 날. 설령 가속도가 붙은, 고의적인 고향 파괴 내지 박탈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 또는 눈물어린 투쟁이라고 해도, 그 무엇을 들고 보고 알기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 살피고 성찰하는 귀향이자 또 다른 화려한 출가(出家)를 꿈꾸는 시간들이다.

행여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우울한 그 어떤 그림자가 따라붙는다고 해도, 설빔으로 같이입은 모든 귀향자들이 서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인 설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본성을 되찾아가는 ‘귀성(歸性)’이자 본처(本處)에의 향수와 성찰을 동반한 ‘귀성(歸省)’을 목념하는 날이라.

<임동화 시인>

### ■ 임동화 시인은



1959년 광주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 및 동대학원졸(석사), 서강대 국문학과 대학원 박사. 시집 ‘매장시편’을 펴내면서 작품

활동 시작. 이후 시집 ‘살아있는 날들의 비망록’ ‘운주사 가는 길’ ‘벽을 문으로’ ‘처음 사랑을 느꼈다’ ‘나는 오래전에도 여기 있었다’, 시화집 ‘내 애인은 왼손잡이’ 5·18 20주년 기념 시선집 ‘꿈, 어떤 맑은 날’, 산문집 ‘들키고 싶은 비밀’, 시론집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등을 펴냈으며 영랑시문학상 수상. 현재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겸임)로 재직중.



### 설 특집 지면 안내

- 12면 설 연휴 생활·교통 정보
- 13면 명절 고생 아내에게 점수따기
- 15면 외국덕 이종마들의 설 수다
- 16~17면 설 연휴 가볼 만한 곳
- 18면 볼 만한 공연·민속놀이
- 19면 볼 만한 영화
- 20~21면 설 연휴 TV 가이드